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상 하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

지도교수 진 미 정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상하

김상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한부모는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67.1%, 막내자녀가 중학생이상인 경우 81.2%를 차지했다. 이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의 경우, 오랜 기간 한부모가족으로 지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구소득 감소 및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발달상의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점은 알려져 왔지만, 이러한 영향이 일회적인 경험으로 그치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발달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발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인 초기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 시점 이전부터 누적된 발달적 불이익을 의미할 수 있는 초기치를 통제한 이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만일 초기치를 통제한 이후 시기에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한부모가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 불이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초기치를 통제한 이후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차이가 유지되거나 줄어들다면, 초기의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의 적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회복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조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 등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향후 정책적 개입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6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표에서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가족을 양부모가족으로, ‘친어머니’ 또는 ‘친아버지’와만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분류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양부모가족을 유지한 1,564명을 ‘양부모가족’,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한부모가족 상태를 연속으로 유지한 100명을 ‘지속적 한부모가족’으로 분류하여 총 1,66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19와 HLM7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조 변수를 투입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경향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는 지속적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과,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를 모두 투입할 경우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절반 가까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양육태도 및 학업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관찰시점 이전의 가족구조에 대해 식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구

조에 대한 부족한 측정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형성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부모의 이혼/사별/별거 중 어떠한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되었는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형성 사유에 따른 청소년의 발달궤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6개년도의 관찰시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부모가족의 지속성 여부를 식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다층성장모형의 변화모수들을 이용하여 이전 시기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 동안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에서 경험하는 발달상의 불이익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 등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개입방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어 :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 종단적 변화
학 번 : 2015-21733

목 차

제 1 장 문제제기	1
1. 문제제기	1
2. 연구문제	7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8
1. 가족구조의 지속성과 청소년의 발달	8
2.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요인 ·	14
1)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14
2)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요인	16
제 3 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19
1. 연구설계	19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21
1) 분석자료	21
2) 분석대상	22
3. 변수의 측정	23
1) 지속적 한부모가족	23
2) 학교생활적응	24
3) 가구소득	24
4) 부모양육태도	25
5) 자녀학업동기	26
4. 분석방법	26
1) 기초모형	28
2) 연구모형	29

제 4 장 연구결과	32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2) 가족구조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비교	34
2.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 변화	35
3.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	37
4.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와 관련요인	39
제 5 장 결론 및 논의	43
참고문헌	52
부록	57
<부록 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표(청소년용) ...	57
<부록 2>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표(보호자용) ...	67
Abstract	74

표 목 차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표2> 가족구조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비교	34
<표3>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 변화	36
<표4>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	38
<표5>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 (설명변수 투입)	42

그 립 목 차

<그림1>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36
<그림2>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	38
<그림3>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설명변수 투입)	41

제 1 장 문제제기

1. 문제제기

한부모가족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등을 통해 양부모가족에서의 해체를 경험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자원과 가족기능의 변화를 매개로 청소년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결과를 보고하여왔다(Arkes, 2015; Cavanagh, Schiller, & Riegle-Crumb, 2006; Cavanagh, 2008; McLanahan & Sandefur, 1994). 그 중에서도 가족구조의 지속성은 흥미로운 연구문제이다.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구소득의 감소 및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를 통해 발달상의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점은 알려져 왔지만, 이러한 영향이 일회적인 경험으로 그치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와 정서적 적응을 감소시키며, 대학진학 여부에서 양부모가족과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등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회, 2003; 김현숙, 2015a; McLanahan & Sandefur, 1994; Arkes,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지표를 단일시점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양상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측정 역시 여러 시점에 걸쳐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Sun & Li, 2009).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시점에 걸쳐 한부모가족 지속기간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친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Magnuson & Berger, 2009)와, 한부모가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집단일수록 학업성취도에서 점점 더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이게 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Sun & Li, 2011). 위 연구들에서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은 대체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의 시기를 고려할 경우, 위 연구는 대체로 미취학에서 초등학생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발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선행연구 중에는 한부모 지속기간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발달상의 불이익이 누적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Sun & Li(2002)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혼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를 ‘선형적인 누적적 감소’, ‘지수적인 누적적 감소’, ‘U자형 회복’, ‘지속적 유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성적에서는 선형적 누적 감소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적 적응 변인의 경우 이혼 전에는 감소하다가 이혼 후 상승하는 U자형의 회복형태를 보였다. 이는 이혼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변인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경우 반드시 누적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초기에 경험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시간에 따라 어려움이 누적될 수 있지만, 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양부모가족 청소년과의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차이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혼 이후에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존재한다(Sun & Li, 2009). 이는 이혼 이후 시기 가족구조를 안정되게 유지할 경우 자녀 또한 안정을 되찾고, 가족자원

또한 점차 안정화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유지한 경우, 양부모가족과 비교했을 때는 14~18세의 학업성적 초기치 뿐만 아니라 변화율에서도 선형적인 감소의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안정화 가설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지위에 변화를 경험한 집단과 비교할 경우,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유지한 집단이 더 안정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양부모가족 청소년과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유지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혼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성적과 심리적 적응 변수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연구결과(Sun & Li, 2002)를 고려한다면, 학업성적이 아닌 다른 적응 변수에서는 안정화가설이 지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번 뒤쳐질 경우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는 학업 점수와 달리, 심리적 적응의 경우 시간에 따라 점차 이혼의 영향을 희미하게 경험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Sun & Li, 2002). 이러한 적응은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간의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오랜 기간의 관찰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특히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관찰 시점 이전부터 누적된 발달적 불이익을 의미할 수 있는 초기치를 통제한 이후의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만일 초기치를 통제한 이후 시기에도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발달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한부모가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 불이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초기치를 통제한 이후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차이가 유지하거나 줄어든다면, 초기의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는 일정한 수준의 적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회복된다는 관점을 지

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지속여부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때 정책적 개입의 방안, 개입의 시기, 지원기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특히 주목한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입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기이다.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이 한부모가족의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는 미국의 맥락과 달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의 결혼생활을 거친 후 이혼 또는 사별 등을 통해 형성된 경우가 많다(여성가족부,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린 시기의 자녀보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막내자녀가 미취학인 집단에서 5년 이상 지속된 한부모가족은 22.4%인데 비해, 막내자녀가 초등학교생인 집단에서는 67.1%, 막내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집단에서 81.2%를 차지했다(여성가족부,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이는 최소한 초등학교생에서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한부모 지속기간이 5년 이상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변화가 민감하게 일어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함의가 더 클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유순화, 2008; 엄선영, 이강이, 2012)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청소년의 적응을 촉진시킬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초기 청소년기에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차이가 크다는 결과(김소진, 2016)도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양부모가족으로의 변동을 경험한 집단까지 포함하였

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찰시점 동안 계속해서 한부모가족 지위를 유지한 집단을 식별하는 작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초기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초기 청소년기의 많은 발달의 영역 중에서도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이다. 숙련편향적 일자리가 증가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의 현실 가운데,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교육적 성취는 미래의 일자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행동에 도움을 주며(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 자체를 중단하게 되기도 한다(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 2013). 가족해체 이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한부모가족 청소년에게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교육적 발판으로서의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족구조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는 적은 편이다.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학진학 여부에서 양부모가족과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연구결과(구인회, 2003)가 존재하지만,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학교생활적응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초기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문제와 더불어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다면,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취약성을 보이는 이유는 가족구조의 해체로 인한 가족자원과 가족기능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McLanahan & Sandefur, 1994). 가족해체의 과정 가

운데 경험한 소득의 감소(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8)는 청소년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가구소득이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까지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구인회, 김정은, 2015). 또한 부모의 이혼은 양육태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McLanahan & Sandefur, 1994; 김은정, 백혜정, 2007; 장혜림, 정익중, 2012), 양육방식의 변화는 다른 변인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마지막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업동기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경우 대학진학을 위한 학비를 부모가 감당해줄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와 동기, 또는 기대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며,(McLanahan & Sandefur, 1994), 낮은 성취동기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다시 학업성취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연옥, 추상엽, 임성문, 2007). 이처럼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 등은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에 존재하는 적응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시기를 초기 청소년기로 보고, 해당 시기의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학교생활적응을 비교함으로써 초기 청소년기의 진입에서부터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통제한 이후에는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차이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벌어지는지 확인하였다. 만일 한부모가족의 지속여부에 따라 초기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차이가 계속 유지되거나 벌어진다면,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향후 정책적 개입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 차이를 검증하고,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영향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연령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어떤 변화궤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연구문제 2-1)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3-1)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는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인가?

연구문제 3-2)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를 통해 가족구조 간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의 차이가 설명된다면, 이후 시점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유지되는가?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구조의 지속성과 청소년의 발달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들은 양부모가족 아동들에 비해 낮은 인지적 발달과 사회정서적 적응 수준을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Waldfoegel, Craigie, & Brooks-Gunn, 2010). 그런데 가족구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는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연구자들은 가족구조의 지속성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Arkes, 2015; Cavanagh, Schiller, & Riegle-Crumb, 2006; Cavanagh, 2008; McLanahan & Sandefur, 1994). 가족구조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가족구조의 변화횟수에 대한 연구와, 가족구조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가족구조의 변화횟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가 적을수록 청소년 발달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이뤄진 반면(Cavanagh, Schiller, & Riegle-Crumb, 2006; McLanahan & Sandefur, 1994), 가족구조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으로 지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누적되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차원의 연구가 이뤄졌다(구인회, 2003; 김현숙, 2015a; Heard, 2007; McLanahan & Sandefur, 1994; Steele, Sigle-Rushton, & Kravdal, 2009).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횟수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중퇴율과 십대 임신율에서 가족구조의 변화경험이 1회 이하인 집단과, 2회 이상인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McLanahan & Sandefur, 1994). 그러나 Cavanagh, Schiller, & Riegle-Crumb(2006)는 출생에서부터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가족구조 변화횟수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교를 중퇴할 가능성과 대

수학 과목을 마친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을 비교해봤을 때, 가족구조의 변화가 잦을수록 대수학 과목 이수 및 졸업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가족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횡수로 측정되기에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변인이기 때문일 수 있다. 변화횟수만을 이용해 가족구조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한 가족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는지의 여부가 보다 더 적절한 측정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구조의 지속기간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으로 지낸 기간이 5년 이하인 집단과, 5년 이상인 집단 간에 고등학교 중퇴율과 십대 임신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McLanahan & Sandefur, 1994). 그러나 Heard(2007)는 부자가족의 지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청소년의 학업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Cavanagh(2008)의 연구에서도 가족구조를 양부모가족, 재혼 계부모 가족, 동거 계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등으로 나눠 각 가족구조에 속한 기간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지속기간은 청소년의 우울 수준 및 마리아나 이용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양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은 청소년의 우울수준 및 마리아나 이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나이가 어릴수록 이후 시기에서 청소년 자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누적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였다(Steele, Sigle-Rushton, & Kravdal, 2009).

한편,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청소년 발달에 영향에 대해 검증한 국내연구들도 존재한다. 구인회(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회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동패널의 결혼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부모 지속 기간을 1-6년, 7년 이상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교

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기 한부모가족 청소년(7년 이상)은 19세에서의 학력연수와, 대학진학 여부가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소득과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산출한 욕구소득비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결과로,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청소년의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김현숙(2015a)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에서, ‘한부모 지속 기간’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결핍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자존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등 정서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한부모가족 청소년은 대체로 발달상의 불이익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Sun & Li(2009)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아동의 발달지표를 단일시점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가족구조의 기간과 청소년 발달의 변화양상을 함께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Sun & Li(2009)는 가족구조의 변화양상이 아동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동 발달에 대한 측정 역시 다시점에 걸쳐 이뤄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시점에 걸쳐 아동 발달지표를 측정한 Arkes(2015)의 연구에서는 가족구조 지속기간의 영향력이 점점 심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Arkes(2015)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시점으로부터 ‘4년 전(혹은 그 이상)’, ‘2-4년 전’, ‘0-2년 전’ 집단과, ‘0-2년 후’, ‘2-6년 후’, ‘6년 후(혹은 그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수학점수, 읽기 인지능력, 독해능력, 문제행동 등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독해능력의 경우 이혼 이전시기로부터 가족구조의 변화 이후시기로 갈수록 성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 또는 별거의 과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해당시기 뿐만 아니라, 가족구

조의 변화 이후,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점점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나 위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혼 전후의 기간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방식이다. Arkes(2015)는 이혼 전후시기를 여러 개의 더미변수로 삼아 시차고정효과분석을 시도하였고, 각 더미변수의 계수가 곧 이혼전후의 기간에 따른 영향력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연구대상 중에는 조사의 중간 시점에서 이혼을 경험한 집단이 있는 반면 초반이나 종반시점에서 이혼을 경험한 집단도 존재하므로, 이혼을 경험한 시기가 각기 다르게 분포한다. 따라서 Arkes(2015)의 분석방법처럼 이혼의 경험시기에 따라 고정효과 더미변수를 투입할 경우, 각각의 더미변수(이혼 4년 전, 2-4년 전, 0-2년 전 등)은 서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고정효과분석에서는 더미변수를 통해 선택편의를 제거한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지만, 집단 간 비교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고정효과 분석에서 이용된 이혼의 시기별 더미변수는 동일한 개체의 시간에 따른 이혼적응도를 보여준다고보다, 각기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혼 집단의 교육성취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의 지속기간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때 동일한 개체 내에서의 변화를 볼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앞선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족구조의 지속기간, 또는 지속성이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분석방법은 다층성장모형이다. Magnuson & Berger(2009)의 연구에서는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해 가족구조의 변화가 6-12세 아동의 문제행동과 독해, 수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6-12세 동안 모자가족으로 지낸 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독해능력, 수학성적의 변화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동일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자가족으로 가족구조를 유지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양부모가족을 유지한 경우와 비교하여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비록 가족구조의 변화이전시

기의 영향력에 대해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앞선 시점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Magnuson & Berger, 2009). 즉, 초기치를 통제할 경우 앞선 시기의 영향력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관찰된 시점의 변화궤적을 분석할 수 있다는 발상에 착안하여, 한부모의 지속기간 혹은 지속성 여부가 6-12세 아동 발달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Magnuson & Berger, 2009).

Sun & Li(2011)의 연구에서도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가족구조의 지속성(안정성) 또는 변화유형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이르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양부모가족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유지한 집단의 수학 성취도의 초기치가 낮을 뿐 아니라, 이후 시기에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 중 다시점에 걸쳐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 연구도 있지만, 다시점에 걸쳐 가족구조의 지속성과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해 파악한 연구에서도 가족구조의 지속성은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미취학에서 초등학생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근거로 이용하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한부모 지속기간이 청소년의 발달에 누적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반대의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 초기 청소년기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기간을 경험한지 오래된 청소년일수록 중학교에서 학업적,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Hines, 2011). 이러한 차이는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적응의 과정을 각각 다른 시점에서, 다른 변인을 대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Sun & Li, 2002).

Sun & Li(2002)는 이혼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이혼 이전 시기부터 이혼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를 ‘선형적인 누적적 감소’, ‘지수적인 누적적 감소’, ‘U자형 회복’, ‘지속적 유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의 과학성적, 독해 성적, 사회성적은 선형적 누적감소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학성적의 경우는 지수적 누적 감소, 즉 시간에 따라 감소 폭이 더 커지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교육적 기대와 자존감, 통제력과 같은 심리적 적응 변인들의 경우 이혼 전에는 감소한 후 이혼 후 상승하는 U자형의 회복형태를 보였다. 이는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변인에 따라 그 양상 또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번 학업에 뒤처질 경우 누적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표준화된 학업 점수와 달리, 이혼 이후의 심리적 적응은 보다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점차 이혼의 악영향은 희미해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Sun & Li, 2002). 이러한 방식의 적응은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차이가 더 누적되지 않도록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거나, 오히려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 및 변인의 성격에 따라서 가족구조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시점 자료 및 이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층성장모형의 분석방법을 이용한다면 시간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발달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차이가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에 따라 누적되는

지 혹은 적응의 양상을 보이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5년 이상 한부모 가족이었던 비율이 78.8%, 10년 이상인 비율은 28%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청소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2.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요인

1)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인간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이뤄진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발달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학교는 청소년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사회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환경이다. 학교생활 적응이 잘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생활 태도, 학교규범 준수, 친구관계에서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일수록 진로 성숙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정주원, 2014).

반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학업중단이나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져 학업성취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학업중단의 이유로 학교부적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 2013), 학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수록 중학생의 비행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윤옥경, 2008), 학교규칙에 불만을 가질수록 중학생의 중퇴 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박창남, 도중수, 2003)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은 청소년의 중퇴 및 일탈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학업을 지속하며 나아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남영옥, 2010)도 있으나, 이는 학교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이전보다 더욱 많은 변화에 부딪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에서 높아진 자율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엄격한 규칙, 성적에 대한 평가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유순화, 2008).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과목을 맡는 초등학교와 달리, 과목별로 담당선생님이 정해지는 중학교의 방식도 학생들이 선생님과 관계를 낯설게 느끼는 요인이 될 수 있다(엄선영, 이강이, 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 변화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중학교로 진학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결과(엄선영, 이강이, 2012)가 있었으나,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생활적응이 선형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결과도 존재했다(이영애, 정현희, 2016).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김소진(201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성장기 동안 가족구조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소진(2016)의 연구에서는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지위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서 양부모가족으로 지위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까지도 한부모가족 청소년으로 보고 분석에 포함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에 따른 차이를 식별하기는 어렵다. 또한 김소진(2016)의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양상을 제시했지만 연도에 따른 평균변화를 제시하는데 그쳤고, 이영애, 정현희(2016)의 연구는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 생활적응 변화를 분석했지만, 선형모형으로만 분석을 시도하여 변화 양상을 다양하게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다층 성장모형의 분할함수 모형을 이용한다면 시점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초기치와 변화율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학교적응의 변화를 측정하기에 보다 적합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할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시기의 학교적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지,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과 중학교 입학 이후의 학교적응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도 검증해볼 수 있다.

2)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 요인

기존의 가족구조가 해체될 경우 발생하는 가족자원과 가족기능의 변화는 청소년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McLanahan & Sandefur, 1994).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학업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변인은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의 학업동기이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구소득의 감소(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8) 및 긍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McLanahan & Sandefur, 1994; 김은정, 백혜정, 2007; 장혜림, 정익중, 2012), 자녀의 성취동기를 낮추기도 한다(임연옥, 추상엽, 임성문, 2007; McLanahan & Sandefur, 1994). 반면 높아진 가구소득 및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고(McLanahan & Sandefur, 1994; Blondal & Adalbjarnardottir, 2014), 자녀의 학업동기 또한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적응과 관련이 높은 요인이다(이윤옥, 2008).

먼저, 가족해체의 과정 가운데 경험한 소득의 감소(김혜영, 변화순, 윤홍식, 2008)는 자녀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인회와 김정은(2015)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의 가족소득이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까지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의 학업성취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McLanahan & Sandefur(1994)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교 중퇴율이 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을 통제할 경우 차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른 변인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Blondal & Adalbjarnardottir(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이후 시기의 학업중단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15세 때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통제하고도,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업이탈을 매개로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하였다는 점이다.

가족구조에 따라 부모 양육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한 연구(이미리, 박주희, 정현숙, 2015)도 존재했지만, 부모의 이혼은 양육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McLanahan & Sandefur, 1994; 김은정, 백혜정, 2007; 장혜림, 정익중, 2012). 한부모가족 청소년은 부모의 학교과제 도움, 부모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McLanahan & Sandefur, 1994),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여 오락매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존재했다(장혜림, 정익중, 2012).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양육태도는 양부모가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할 경우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사이의 학교적응의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교 중퇴율이 6%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개입, 감독, 기대 등의 양육행동을 통제할 경우 그 차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McLanahan & Sandefur, 1994).

마지막으로, 임연옥, 추상엽, 임성문(2007)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더 낮은 성취동기를 보이며, 낮은 성취동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다시 학업성취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McLanahan & Sandefur(1994)의 주장처럼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경험하는 낮은 소득과 지역사회의 자원 감소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대학진학을 위한 학비를 부모가 감당해줄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와 동기, 또는 기대 자체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낮은 교육적 기대를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Garg, Melanson, & Levin, 2007), 한부모의 성별에 관계없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려는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Park, 2008).

한부모가족에서 경험하는 소득의 감소가 부모의 학업지원행동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추상엽, 임성문, 2007)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한부모가족에서 경험하는 소득의 감소가 부모의 학업지원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성취동기를 감소시켜 결국 자녀의 학업성취를 감소시키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초·중학생의 학업동기의 하위요인인 숙달목표, 학업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문은식, 김충희, 2003). 또한 가족의 심리환경요인인 부모의 기대와 지원이 자녀의 동기조절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신명희, 이혜원, 2010)를 고려해볼 때, 한부모가 이혼 과정을 통해 경험한 양육태도의 감소가 자녀의 동기조절 요인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학업동기와 학교적응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이윤옥(2008)의 연구에서는 학업동기가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적응과 관련을 보였으며, 특히 친구관계에 있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낮은 성취동기는 학교수업 및 교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제 3 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가족구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고유한 발달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족구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가족구조의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가족구조의 정확한 변화양상을 파악할 만큼 오랜 시간 측정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실시되는 종단조사들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해 회고적인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지만(Cavanagh, Schiller, & Riegle-Crumb, 2006), 국내의 패널자료 중 이런 자료는 드물다. 가족구조의 변화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이다. 국내 최장기패널인 한국노동패널에 청소년의 성장기 가족구조를 회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결혼력 자료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생애에 걸친 가족구조를 종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구인회, 2003), 청소년의 가정환경, 학교환경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반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가족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정, 학교환경 차원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자료상의 측정시점이 6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찰된 시점의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그 이전 시기의 가족구조 변화가 청소년 발달에 미친 영향까지도 간접적으로나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때 한계점은 최초 조사 시점인 초등학교 4학년(11세) 이전의 가족구조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에 한부

모가정인 경우, 이들이 언제 한부모가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관찰된 6개년 자료 내내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정 지위를 유지한 집단이라는 것만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층성장모형의 다양한 변화모수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층성장모형에서 성장회귀선이 추정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초기치와 변화율은 하나의 통합모형 안에서 분석된다. 특히 초기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체의 변화양상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은 다층성장모형의 장점이다. 즉, 초기치를 통제하면 이전 시기에 발생한 ‘가족구조 변화시기’, ‘변화횟수’, ‘지속기간’ 등의 영향력을 함께 통제한 상태에서 이후 연구대상의 변화양상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치에서는 한부모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되거나 회복하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 한부모가정 여부를 투입한 성장모형에서의 변화율은, 가족구조에 따른 이전 시기의 누적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관찰시점 동안 한부모가정의 지속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추가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족구조 간 발생하는 초기치의 차이는 다른 관련요인의 투입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설명변인을 투입했을 때 지속적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의 초기치 차이가 줄어들거나 사라졌다면, 이는 가족구조 간 이전 시기에 경험한 누적적인 영향을 통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설명변인의 투입 이후에 초기치에서 지속적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의 차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변화율에서도 차이가 없다면, 자원의 투입 여부에 따라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이 동일한 양상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지속적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사이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제시한다면,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사별/별거 등을 사유로 친어머니 또는 친아버지와만 함께 사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을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하고, 6개년도 관찰시점을 이용해 ‘6년 내내 한부모가족 지위를 유지한 집단’을 ‘6년 내내 양부모가족 지위를 유지한 집단’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상으로는 이혼/별거/사별의 상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가족구조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관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이었던 집단은 이혼/사별 후 장기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관찰년도의 시점만을 이용해서는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미치는 영향을 전시기에 걸쳐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다층성장모형의 분석방법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한다면, 관찰시점 이후 한부모가족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집단과 양부모가족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그 차이가 어떠한 변화궤적을 보이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6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조사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2010년 1차 조사를 완료한 표본

(원표본)은 총 7,071명이며, 이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원표본 사례 수는 2,378명이다. 또한 1~6차에 걸친 추적조사동안 원표본유지율은 86.7%로, 총 2,061명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를 본 연구의 자료로 이용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전반적으로 유용하면서도, 본 연구의 핵심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부모구성 변수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변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2016년까지 실시된 조사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연구자가 이용 가능한 자료 중에서도 가장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 중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1~6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의 시기에 청소년의 학교적응 양상이 더 뚜렷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김소진, 2016)에서는 다른 시기에 비해 초등학교 4학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의 시기에 학교생활 적응의 집단 내 편차 및 집단 간 편차가 크며,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청소년 간 보이는 차이도 뚜렷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청소년이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보호자용 조사표에서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가족을 양부모가족으로, ‘친어머니’ 또는 ‘친아버지’와만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분류하였으며,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등의 가족구성은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위

질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세부문항에서는 “부모님(보호자)의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을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고”, “타 지역 근무 또는 건강상 요양/입원 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어, ‘친어머니’ 또는 ‘친아버지’와만 산다고 응답한 경우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족으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에서 6차 조사까지 이탈하지 않고 유지된 표본 2,0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변수의 측정

1) 지속적 한부모가족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에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료를 병합하여 종단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양상을 식별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양부모가족을 유지한 1,564명을 ‘양부모가족’,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한부모가족 상태를 연속으로 유지한 100명을 ‘지속적 한부모가족’으로 분류하였다. 가족구조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1~6차 조사 중 부모구성 변수에 결측치를 보인 대상자는 최대한 제외하였으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표본 수가 부족한 한계를 고려해 초기 시점을 제외한 기타 시점에서 1회 결측된 대상까지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속적 한부모가족’ 더미변수를 개인수준 변수로 투입하여 다층성장모형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2)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문선모(1977),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정화실, 1991에서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한 문항을 이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였으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이뤄져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뤄져있으며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학교생활적응을 의미한다.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을 의미하도록 재부호화한 뒤 평균을 구해 이용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측정된 학교생활적응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88, 2차년도 .89, 3차년도 .89, 4차년도 .90, 5차년도 .88, 6차년도 .90이었다.

3) 가구소득

가구연간소득은 만원단위로 조사된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연속변수로 이용하였다. 0으로 측정된 값도 일부 존재했는데, 0의 값은 결측치가 아닌 측정값임에도 불구하고 로그변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1을 더한 뒤 자연로그를 취해 0의 값을 갖도록 변환하여 이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로 가정하여 1~6차년도의 가구소득을 시점별로 모두 투입하였다.

4) 부모양육태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 문항을 활용하여 원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양육태도는 총 21 문항으로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였으며,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등 감독 3 문항, 애정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과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 등 비밀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뤄져 있으며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하도록 재부호화하였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임선아, 2014)에서는 감독 3문항, 애정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을 민주적 양육태도, 비밀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을 비민주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민주적 양육태도와 비민주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감독 3문항, 애정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을 민주적 양육태도로, 비밀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을 비민주적 양육태도로 정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초기 시점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차년도 양육태도만을 이용했으며, 민주적 양육태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6, 비민주적 양육태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다.

5) 자녀 학업 동기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 측정도구 84개 문항 중,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한 문항에서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와 관련이 깊은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학습습관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동기조절 요인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업동기를 측정하였다. 학업동기는 총 9문항으로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였으며,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등 성취가치 7문항, 숙달목적지향성 2문항으로 이뤄져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점수가 낮을수록 학업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업동기를 의미하도록 재부호화한 뒤 평균을 구해 이용했다. 초기 시점의 학업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차년도 학업동기만을 이용했고,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9였다.

4. 분석방법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각 연도별 자료는 개인 수준에 내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이 적합하다. 또한 다층성장모형은 전통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개인별로 고유한 성장곡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강상진, 2016)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시점에 따른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이 개인 수준 특성에 따라 어떠한 개인차를 가지는지 검증하였고, 변화궤적에 개

인차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지속적 한부모가족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프로그램 SPSS 19와, HLM7을 이용하였는데, 먼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초4패널 1~6차 자료를 SPSS 파일로 내려 받아 자료를 병합한 후, HLM 프로그램에서 mdm파일로 변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층성장모형에서는 먼저 기초모형을 통해 전체 분석대상의 평균 성장선을 정의한 후, 개인수준의 특성변수에 따라 성장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성장선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변화율이 일정한 선형 모형(linear growth model)’, ‘시간에 따라 변화율이 달라지는 비선형 모형(non-linear growth model)’으로 나뉘며, 관찰시점을 여러 개의 시기로 나눠 각 시기마다의 기울기를 다르게 추정하는 선형분할함수 모형도 존재한다(O’Connell & McCoach, 2008). 강상진(2016)은 기초모형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타당한 모형, 편차량이 적은 모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입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형분할함수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1 시점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기울기를 다르게 추정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중학교 진입 이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다른 선형, 비선형 경쟁모형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적은 편차량¹⁾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1번에 해당하는 다층모형분석의 기초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쟁모형들의 편차량은 일차선형함수 8109.15, 이차함수 8012.66, 초등학교 6학년 시점 분할함수 8013.35으로 나타난데 비해, 본 연구의 모형인 중학교 1학년 시점 분할함수는 7985.36로 가장 적은 편차량을 보였다.

1) 기초모형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연령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어떤 변화궤적을 보이는가?

<1수준>

$$\text{학교생활적응}_{ti} = \pi_{0i} + \pi_{1i}(\text{초4-중1시기}) + \pi_{2i}(\text{중1-중3시기}) + e_{ti}$$

<2수준>

$$\pi_{0i} = \beta_{00} + r_{0i}$$

$$\pi_{1i} = \beta_{10} + r_{1i}$$

$$\pi_{2i} = \beta_{20} + r_{2i}$$

<통합모형>

$$\begin{aligned} \text{학교생활적응}_{ti} = & \beta_{00} + \beta_{10}*(\text{초4-중1})_{ti} + \beta_{20}*(\text{중1-중3})_{ti} + \\ & r_{0i} + r_{1i}*(\text{초4-중1})_{ti} + r_{2i}*(\text{중1-중3})_{ti} + e_{ti} \end{aligned}$$

기초모형의 1수준 모형에서 교생활적응_{ti}는 t시점에서 개인 i의 학교생활적응 점수를 의미한다. 초4-중1_{ti}은 개인 i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시간 코딩, 중1-중3_{ti}은 개인 i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시간 코딩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측정시점을 0,1,2,3,3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측정시점을 0,0,0,0,1,2로 중심화(centering)하여 코딩하였다. π_{0i} 는 개인 i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초등학교 4학년 시점), π_{1i} 는 개인 i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π_{2i} 는 개인 i의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e_{ti} 는 개인 i 의 t 시점에서
의 오차를 의미한다. 즉, 1수준 모형은 시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개인 내 변화를 검증한다.

기초모형의 2수준 모형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 간 차이를 설
명한다. β_{00} 은 고정효과 추정치로써 학교생활적응 초기치(π_{0i})의 전
체 평균을 나타내며, β_{10} , β_{20} 도 고정효과 추정치로써 각각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 학교생활적응 변화율(π_{1i})의 전체 평
균,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시기 학교생활적응 변화율(π_{2i})
의 전체 평균을 나타낸다. γ_{0i} , γ_{1i} , γ_{2i} 는 무선효과 추정치로써 각각
학교생활적응 초기치(π_{0i})와 학교생활적응 변화율(π_{1i} , π_{2i})에 있어서
의 개인별 분산을 나타낸다.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학교생활적응 초기치(π_{0i})와 변화율(π_{1i} , π_{2i})에 개인수준 변수를 투입
하여 해당 독립변수가 변화궤적에 차이를 불러오는 요인인지 검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학교생활적
응 초기치(π_{0i})와 변화율(π_{1i} , π_{2i})에 개인수준 변수를 투입한 연구모
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모형

연구문제 2-1)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초기치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가?

<2수준 - 가족구조 모형>

$$\pi_{0i}(\text{초기치}) = \beta_{00} + \beta_{01}(\text{지속적 한부모}) + r_{0i}$$

$$\pi_{1i}(\text{초4-중1}) = \beta_{10} + \beta_{11}(\text{지속적 한부모}) + r_{1i}$$

$$\pi_{2i}(\text{중1-중3}) = \beta_{20} + \beta_{21}(\text{지속적 한부모}) + r_{2i}$$

가족구조 변수만 투입한 모형에서 ‘지속적 한부모’ 변수의 고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각각 학교생활적응 초기치(π_{0i})와 변화율(π_{1i} , π_{2i})에 영향을 미쳐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변화궤적에서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때 연구자는 개인수준 변수의 고정효과가 유의한지 뿐만 아니라, 해당 변인의 투입으로 인해 학교적응 초기치(π_{0i})와 변화율(π_{1i} , π_{2i})의 분산(γ_{0i} , γ_{1i} , γ_{2i}) 또한 줄어들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만일 위의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γ_{0i} , γ_{1i} , γ_{2i} 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학교적응 초기치(π_{0i})와 학교적응 변화율(π_{1i} , π_{2i})에 아직 설명되지 않은 개인차가 있으며, 추가적인 변인에 의해 설명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연구문제 3-1)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는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인가?

연구문제 3-2)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를 통해 가족구조 간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의 차이가 설명된다면, 이후 시점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유지되는가?

<2수준 - 설명변인 투입 모형>

$$\pi_{0i}(\text{초기치}) = \beta_{00} + \beta_{01}(\text{지속적 한부모}) + \beta_{02}(\text{민주적 양육태도}) + \beta_{03}(\text{비민주적 양육태도}) + \beta_{04}(\text{자녀학업동기}) + r_{0i}$$

$$\pi_{1i}(\text{초4-중1}) = \beta_{10} + \beta_{11}(\text{지속적 한부모}) + \beta_{12}(\text{민주적 양육태도}) + \beta_{13}(\text{비민주적 양육태도}) + \beta_{14}(\text{자녀학업동기}) + r_{1i}$$

$$\pi_{2i}(\text{중1-중3}) = \beta_{20} + \beta_{21}(\text{지속적 한부모}) + \beta_{22}(\text{민주적 양육태도}) +$$

$$\beta_{23}(\text{비민주적 양육태도}) + \beta_{24}(\text{자녀학업동기}) + r_{2i}$$

$$\pi_{3i}(\text{로그가구소득}) = \beta_{30}$$

<통합모형>

$$\begin{aligned} \text{학교생활적응}_{ti} = & \beta_{00} + \beta_{01}(\text{지속적 한부모}) + \beta_{02}(\text{민주적 양육태도}) \\ & + \beta_{03}(\text{비민주적 양육태도}) + \beta_{04}(\text{자녀학업동기}) + \beta_{10} + \beta_{11}(\text{지속적 한부모}) \\ & + \beta_{12}(\text{민주적 양육태도}) + \beta_{13}(\text{비민주적 양육태도}) + \beta_{14}(\text{자녀학업동기}) \\ & + \beta_{20} + \beta_{21}(\text{지속적 한부모}) + \beta_{22}(\text{민주적 양육태도}) + \beta_{23}(\text{비민주적 양육태도}) \\ & + \beta_{24}(\text{자녀학업동기}) + \beta_{30}(\text{로그가구소득}) + r_{0i} + r_{1i} + r_{2i} + e_{ti} \end{aligned}$$

이러한 경우 로그가구소득, 1차년도 부모양육태도(민주적, 비민주적), 1차년도 자녀학업동기 등의 설명변인을 투입하여, 가족구조 간의 차이를 위 변인들이 얼마만큼 설명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로그가구소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변변수로 투입되었고, 1차년도 부모양육태도(민주적, 비민주적)와 1차년도 자녀학업동기는 개인수준 변수로 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설명변인을 투입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변화궤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전체 1,664명의 분석 대상 중 관찰기간 동안 계속해서 양부모가족 지위를 유지한 청소년은 1,564명으로 94%를 차지했고, 관찰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부모가족 지위를 유지한 청소년은 100명으로 6%를 차지했다.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위를 유지한 청소년 100명 중 부자가족은 50명, 모자가족은 44명이었으며, 부자가족과 모자가족을 번갈아 경험한 청소년은 6명이었다. 전체 분석대상 중 남학생은 881명으로 52.9%를 차지했고, 여학생은 783명으로 47.1%를 차지했다.

가족구조에 따른 매 조사시점의 가구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였으나 그 폭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경향을 보였다. 양부모가족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4,534만원, 중학교 3학년 시점에는 5,094만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였고, 한부모가족 청소년도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1,960만원, 중학교 3학년에는 2,093만원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폭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작았다.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양부모가족은 3.29, 한부모가족은 3.16으로 양부모가족의 양육태도가 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비민주적 양육태도에서는 한부모가족이 2.51, 양부모가족이 2.45로 한부모가족이 양육태도가 보다 비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학업동기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족이 3.22, 한부모가족이 3.05로 양부모가족의 자녀학업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664)

변수	구분	빈도 평균	(%) (표준편차)
가족구조	양부모가족	1,564	(94.0)
	한부모가족	100	(6.0)
	전체	1,664	(100.0)
한부모가족 형태	부자가족	50	(50.0)
	모자가족	44	(44.0)
	부자,모자가족 이동	6	(6.0)
	전체	100	(100.0)
성별	남자	881	(52.9)
	여자	783	(47.1)
	전체	1,664	(100.0)
연간가구소득 (만원)	양부모가족(초4)	4,534	(2,638)
	양부모가족(초5)	4,788	(2,983)
	양부모가족(초6)	4,890	(2,890)
	양부모가족(중1)	4,905	(2,526)
	양부모가족(중2)	4,914	(2,152)
	양부모가족(중3)	5,094	(2,168)
	한부모가족(초4)	1,960	(1,285)
	한부모가족(초5)	1,932	(1,328)
	한부모가족(초6)	2,049	(1,474)
	한부모가족(중1)	2,093	(1,422)
	한부모가족(중2)	2,089	(1,410)
	한부모가족(중3)	2,344	(1,695)
민주적 부모양육태도 (초4 시점, 1-4점)	양부모가족	3.29	(0.53)
	지속적 한부모가족	3.16	(0.55)
비민주적 부모양육태도 (초4 시점, 1-4점)	양부모가족	2.45	(0.61)
	지속적 한부모가족	2.51	(0.54)
자녀학업동기 (초4 시점, 1-4점)	양부모가족	3.22	(0.55)
	지속적 한부모가족	3.05	(0.53)

2) 가족구조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비교

가족구조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비교는 <표2>에 제시하였다. 조사 시점에 따른 청소년 학교생활적응 평균을 비교해보면,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부터 3.11이었으나, 중학교 2학년까지 2.97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3학년에는 3.04로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 2.87에서 중학교 1학년에는 2.82까지 소폭 하락하고, 다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거치면서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중학교 진학을 기준으로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조사시점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궤적을 보다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 가족구조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비교 (N = 1,664)

학교생활 적응		초4 (2010)	초5 (2011)	초6 (2012)	중1 (2013)	중2 (2014)	중3 (2015)
양부모 가족	평균	3.11	3.08	3.04	3.00	2.97	3.04
	표준편차	0.41	0.43	0.43	0.43	0.39	0.40
	빈도	1482	1529	1526	1522	1527	1534
한부모 가족	평균	2.87	2.85	2.84	2.82	2.89	2.83
	표준편차	0.41	0.40	0.46	0.47	0.41	0.34
	빈도	94	93	96	90	88	86
평균		3.10	3.07	3.03	2.99	2.97	3.03
전체	표준편차	0.42	0.43	0.43	0.43	0.39	0.40
	빈도	1576	1622	1622	1612	1615	1620

2.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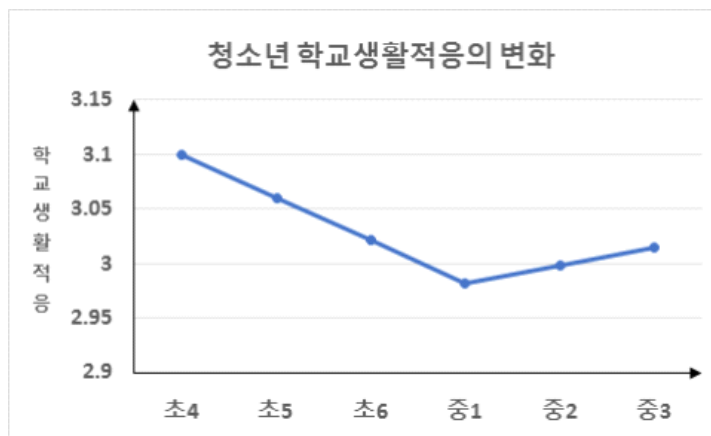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연령에 따라 어떤 변화궤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1시점에서의 분할함수모형을 이용하여 기초모형을 분석하였다. <표3>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고정효과 계수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초등학교 4학년($\beta_{00}=3.099$, $p<.001$)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일정한 비율($\beta_{10}=-0.039$, $p<.001$)로 감소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_{20}=0.016$, $p<.01$). 그러나 학교적응 변화궤적의 개인 간 분산을 의미하는 무선효과 계수가 학교적응 초기치($\gamma_0=0.106$, $p<.001$)와 초4-중1시기 변화율($\gamma_1=0.010$, $p<.001$), 중1-중3시기 변화율($\gamma_2=0.008$,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은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부모가족 청소년이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다른 변화궤적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가족구조 변수를 투입한 연구모형을 통해 청소년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가 설명되는지 검증하였다.

<표3>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 변화

(N = 1,664)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학교적응 초기치		
	평균(β_{00})	3.099	(0.010)***
	초4-중1 변화율		
	평균(β_{10})	-0.039	(0.004)***
	중1-중3 변화율		
	평균(β_{20})	0.016	(0.005)**
		분산 (표준편차)	
무선효과	학교적응 초기치		
	분산(γ_0)	0.106	(0.325)***
	초4-중1 변화율		
	분산(γ_1)	0.010	(0.100)***
	중1-중3 변화율		
	분산(γ_2)	0.008	(0.088)***

** $p < .01$, *** $p < .001$



<그림1>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3.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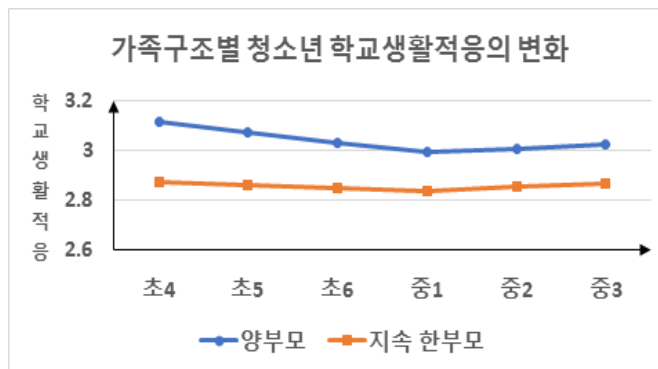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가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가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_{01}=-0.244$, $p<.001$), 변화율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 가족구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보인 뒤,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무선효과 계수를 살펴보았을 때는, 학교적응 초기치의 개인 간 분산이 기초모형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조 변수가 개인 간 차이를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 변수의 투입 이후에도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 간 분산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보아($\gamma_0=0.102$, $\gamma_1=0.010$, $\gamma_2=0.008$, $p<.001$), 그 설명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가족구조 변수 외에도 다른 변인이 청소년 학교적응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가구소득, 부모양육 태도, 자녀학업동기 등 가족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설명변인의 투입 이후에도 가족구조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표4>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 (N = 1,664)

구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교적응 초기치 평균(β_{00})	절편(β_{00})	3.114	(0.010)***
	지속적 한부모가족(β_{01})	-0.244	(0.041)***
	(ref. 양부모가족)		
		분산 (표준오차)	
초4-중1 변화율 평균(β_{10})	절편(β_{10})	-0.041	(0.004)***
	지속적 한부모가족(β_{11})	0.031	(0.018) [†]
	(ref. 양부모가족)		
		분산 (표준오차)	
중1-중3 변화율 평균(β_{20})	절편(β_{20})	0.016	(0.005)***
	지속적 한부모가족(β_{21})	-0.003	(0.023)
	(ref. 양부모가족)		
		분산 (표준편차)	
무선효과	학교적응 초기치 분산(γ_0)	0.102	(0.320)***
	초4-중1 변화율 분산(γ_1)	0.010	(0.100)***
	중1-중3 변화율 분산(γ_2)	0.008	(0.08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2>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4.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와 관련요인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로그가구소득, 민주적 양육태도(1차년도), 비민주적 양육태도(1차년도), 자녀학업동기(1차년도) 변인을 투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을 투입할 경우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 차이가 0.244에서 0.20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가구소득과 함께 부모의 양육태도를 투입할 경우 0.208에서 0.164로 감소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녀 학업동기를 함께 투입했을 때는 0.164에서 0.132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모든 설명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는 0.244에서 0.13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 모형에 설명변인을 투입했을 때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학교생활적응을 초기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양육태도와 학업동기 변인을 함께 투입할 경우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양육태도나 학업동기를 통해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암시한다. 또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나 비민주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 초기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양육태도는 학업동기를 함께 투입할 경우 그 영향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동기를 통해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부모의 비민주적 양육태도보다는 민주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더욱 크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업동기는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를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도 학교생활적응 초기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투입한 변인들 중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인은 대체로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동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변인 모두 초기치에서는 양의 값을, 초4-중1시기 변화율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적 양육태도와 자녀 학업동기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초기치가 높지만, 초기치가 높을수록 이후 시기의 변화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변화모수간의 상관행렬에서도 초기치와 초4-중1시기의 변화율이 음의 상관관계($\rho_{01}=-0.134$)를 가진 것으로나 이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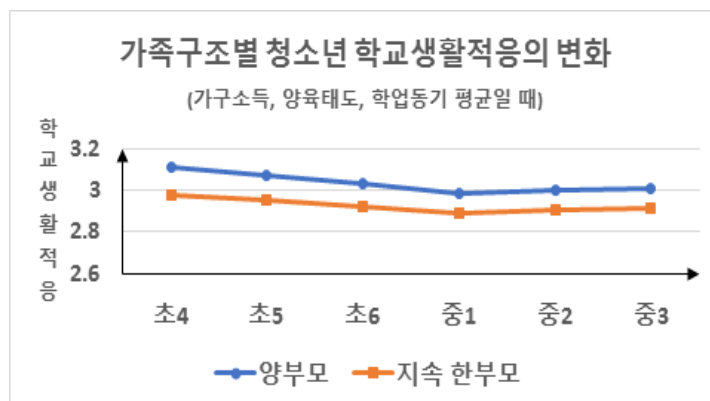
가족구조를 포함한 모든 설명변인은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시점의 자원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의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동기만을 투입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중학교 1학년 이후 시기의 부모양육태도나 학업동기를 투입할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성장모형의 차원에서 해석할 경우, 초기치와 초4-중1시기의 변화율을 이미 통제했기 때문에, 중1-중3 시기의 영향에 대한 추정력이 약해진 결과일 수도 있다. 변화모수간의 상관행렬에서도 초기치와 중1-중3 시기의 변화율 사이의 상관관계($\rho_{02}=-0.313$)와 초4-중1 시기의 변화율과 중1-중3시기의 변화율 사이의 상관관계($\rho_{12}=-0.269$)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선효과 계수를 살펴보았을 때는 모든 설명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족구조,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 외에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의 분산은 기초모형이 0.106이었던데 비해, 모든 설명변인을 투입한 연구모형에서는 0.032로 70%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청소년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의 전반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기초모형에서, 가족구조 및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

업동기 변인을 투입할 경우 개인별로 보이는 차이의 70%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구조,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 변화율의 분산에서도 기초 모형은 0.010이었던 데 비해, 모든 설명변인을 투입한 연구모형에서는 0.007로 30%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의 전반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기초 모형에서, 가족구조 및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 변인을 투입할 경우 개인별로 보이는 차이의 30%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구조,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설명변수 투입)

<표5>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설명변수 투입)

(N = 1,664)

고정효과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초기치(π_0)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β_{00})	2.831	(0.096)***	1.815	(0.112)***	1.371	(0.099)***
지속한부모(β_{01}) (ref. 양부모)	-0.208	(0.043)***	-0.164	(0.037)***	-0.132	(0.031)***
민주적 양육 1차(β_{02})			0.367	(0.019)***	0.176	(0.019)***
비민주적 양육 1차(β_{03})			-0.052	(0.015)***	-0.068	(0.013)***
학업동기 1차(β_{04})					0.363	(0.019)***
초4-중1 변화율(π_1)						
절편(β_{10})	-0.042	(0.004)***	0.153	(0.032)***	0.271	(0.032)***
지속한부모(β_{11})	0.031	(0.018) [†]	0.021	(0.018)	0.012	(0.017)
민주적 양육 1차(β_{12})			-0.063	(0.008)***	-0.018	(0.009) [†]
비민주적 양육 1차(β_{13})			0.005	(0.007)	0.009	(0.007)
학업동기 1차(β_{14})					-0.085	(0.010)***
중1-중3 변화율(π_2)						
절편(β_{20})	0.016	(0.005)**	0.021	(0.043)	0.005	(0.047)
지속한부모(β_{21})	-0.005	(0.023)	-0.006	(0.023)	-0.004	(0.023)
민주적 양육 1차(β_{22})			-0.006	(0.010)	-0.012	(0.013)
비민주적 양육 1차(β_{23})			0.006	(0.009)	0.006	(0.009)
학업동기 1차(β_{24})					0.011	(0.014)
로그소득(π_3)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초기치 분산(γ_0)	0.101	(0.318)***	0.061	(0.248)***	0.032	(0.180)***
초4-중1 변화율 분산(γ_1)	0.010	(0.100)***	0.009	(0.094)***	0.007	(0.086)***
중1-중3 변화율 분산(γ_2)	0.008	(0.088)***	0.008	(0.088)***	0.008	(0.089)***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족구조의 변화횟수, 한부모가족으로 지낸 기간에 따라서 발달상의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한부모기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학진학 여부에서 양부모가족과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연구결과(구인회, 2003)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초기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적응 수준에 있어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 등의 변인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 향후 정책적 개입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6차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년도의 관찰시점 내에서 한부모가족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속적 한부모가족으로, 관찰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양부모가족 지위를 유지한 경우 양부모가족으로 정의하였다. 분석대상은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 100명, 양부모가족 청소년 1,564명으로 총 1,664명이었으며,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까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적응 변화의 무선효과 계수가 유의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궤적은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구조 변수를 투입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궤적을 살펴본 결과,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가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율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가족구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양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경향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은 이혼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한부모가족의 지위를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한부모가족 지위를 유지해왔다면, 한부모가족 지속기간의 누적으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부터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큰 차이를 보이나, 그 이후 시기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치에서의 일종의 누적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그 차이가 시간에 따라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유지한 경우 14~18세의 학업성적 초기치 뿐만 아니라 변화율에서도 선형적인 감소의 추세를 보였다는 Sun & Li(2009)의 결과와는 상반되며, 심리적 적응의 측면에서는 시간에 따라 점차 이혼의 영향력이 희미해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될 수 있다는 Sun & Li(2002)의 연구결과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족구조의 변화는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초기의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는 새로운 가족구조에의 적응이 이뤄지면서 양부모가족 청소년과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는 지속적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과,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를 모두 투입할 경우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 사이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절반 가까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봤을 때, 가구소득만 투입했을 경우 학교생활적응을 초기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양육태도와 학업동기 변인을 함께 투입할 경우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양육태도나 학업동기를 통해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암시한 것이다. 반면,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나 비민주적 양육태도는 가구소득이나, 학업동기를 투입한 상태에서도 학교생활적응 초기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비민주적 양육태도보다는 민주적 양육태도가 설명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업동기 역시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태도를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도 학교생활적응 초기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투입한 변인들 중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었던 소득지원 정책과 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업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소득지원 정책과 부모교육도 계속해서 중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이어질 필요가 존재한다. 가구소득과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학업동기가 가족구조 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절반 가까이 설명했다는 점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충분한 개입과 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적응상의 불이익이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때 정책

적 개입의 방안, 개입의 시기, 지원기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지속적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에서 경험하는 발달적 불이익이 존재하지만, 초기 시점에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의 차원에서 개입이 이뤄질 경우 이러한 차이를 상당 부분 좁힌 상태로 초기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으로서 경험하는 불이익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 내내 이어지는 불이익으로 되지 않도록 가능한 초기시점에서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두 가지 방향성은 소득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양육태도 및 학업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도입이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김영란, 김민정(2016)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및 교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저소득가구에 집중되어있는 지원 기준에 대한 완화(김현숙, 2015b)가 필요하다. 최저생계비에 해당될 만큼 낮은 소득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저소득의 범위에 분포해 있는 한부모가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김현숙, 2015b). 특히 모자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김은정, 백혜정, 2007).

이는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학업시간 연구에서 가구소득을 통제할 경우 모자가족과 양친가족 아동 사이의 학업시간 차이가 사라졌다는 진미정(2008)의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모자가족의 경우 가족구조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지만, 소득지원 정책을 통해 소득이 향상되었을 경우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간사용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진미정, 2008). 한부모가족의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부조를 통해서만 이루

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자녀의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합의이행 준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사별을 통해 발생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어렵지만, 한부모가족의 상당수는 이혼을 통해 생겨난 가족이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도, 전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양육비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비동거부모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한부모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미애, 진미정(2009)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어머니들이 생계부양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초생활수급과 자활참여를 동시에 선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양부모 맞벌이가족에서의 일·가족 양립과 달리, 한부모 가족의 일·가족 양립은 유연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임금이 함께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성미애, 진미정, 2009). ‘노동시간과 급여의 균형이 이루어진 일자리’야말로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임선아(2014)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부터 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였고, 애정적·합리적·감독적·훈육적 양육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개입시기도 고려하여야 한다. 김현숙(2015b)는 한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입이 가족구조 변화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현숙, 2015b), 가족구조 변화 이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이 자녀에게 누적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

초기에서부터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김현숙, 2015b).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양육태도 외에도 부모의 학습적 관여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장혜림, 정익중(2012)은 빈곤가족, 한부모가족일수록 부모의 양육방식 결여로 자녀가 오락매체 노출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관리하고 충동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할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오락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초등학생시기 뿐 아니라 중, 고등학생에서의 학습습관 및 학습능력, 학교생활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영란, 김민정(2016)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가족의 구조적 결핍으로 인해 양육과 학습지원을 동시에 하기 어려운 부모의 기능을 대체(또는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자녀학습지원자로서의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생계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김현숙(2015b) 역시 한부모가 자녀에게 학습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선 및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미리 외(2015)는 부자가족의 경우 모자가족 및 양친가족에 비해 취약한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는데, 앞서 논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있어 한부모의 성별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또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전달체계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프로그램 접근성에 따라 참여도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대상자격만 충족하면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

는 소득지원정책과 달리,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다. 또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서도 얻게 되는 효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Ansari & Gershoff(2016)의 연구는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녀보육·학교 또는 훈련·교통 등의 프로그램 참여 장애요인은 부모의 프로그램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의 교실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사·직원 훈련은 부모의 프로그램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취업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행 요일이나 시간을 선택하는데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현숙(2015b)는 한부모들이 시간 부족 혹은 편견으로 인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 밖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및 유연한 시간대의 부모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지속성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찰시점 이전의 가족구조에 대해 식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가족구조의 변화는 관찰시점 이전의 10년 동안에도 고유의 발달궤적을 보였을 것이다.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층성장 모형의 변화모수를 이용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의 해석을 시도하였지만 관찰시점 이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정이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에 대한 부족한 측정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연구방향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발달사항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종단 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현재 국내의 조사현황으로는 현실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현재로서 가족구조에 대한 가장 긴 회고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에서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형성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자료인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청소년이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한부모가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사별/별거 중 어떠한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되었는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형성 사유에 따른 청소년의 발달궤적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속적 한부모가족이라고 명명한 집단은 이혼 이후 장기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유지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찰시점을 통해 정의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자원과 기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가족해체의 형성배경에 따라서도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가족구조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혼/사별/별거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집단 분류를 통해 그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이지만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결국 학업중단 등으로 이어지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가족구조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제외한 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내에서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양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단순히 적응상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 등 교육적 경로를 이탈하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구조 변화궤적과 함께 한부모가족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또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넘어 학업을 중단할 만큼

의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밝힘으로써, 보다 취약한 집단에 대한 개입의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6개년도 관찰시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부모가족의 지속성 여부를 식별하고, 가족구조의 차이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다층성장모형의 변화모수들을 이용하여 한부모가족의 지속성이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이전 시기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시기,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가구소득, 부모양육태도, 자녀학업동기가 지속적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절반 가까이 좁힐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정책적 개입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2016). **다층모형**. 서울:학지사
- 김소진(2016). 한부모 가정 아동·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양부모 가정 아동·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8(3), 101-120.
- 김영란, 김민정(2016). 가족의 기능적 변인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형. **여성연구**, 90(1), 45-86.
- 김은정, 백혜정(2007). 이혼으로 인한 ‘가족상실’, ‘경제소득’ 및 ‘양육행동’의 변화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79-103.
- 김혜영, 변화순, 윤홍식(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37-63.
- 김현숙(2015a). 한부모 가족의 기간이 자녀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47(단일호), 5-28.
- 김현숙(2015b). 한부모가족의 소득, 양육태도, 교육적 지원,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아동복지 연구소 보고서**, 2015(1), 49-99.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2, 393-410.
- 구인회, 김정은(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27-49.
- 남영옥(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 문은식, 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 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창남, 도종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

- 소년학연구, 10(3), 207-238.
- 성미애, 진미정(2009). 빈곤 한부모 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족 양립. **가족과 문화**, 21(3), 1-28.
- 신명희, 이해원(2010).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1(2), 113-134.
- 윤옥경(2008).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교정연구**, 38, 107-138.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68.
- 엄선영, 이강이(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3), 89-100.
- 이미리, 박주희, 정현숙(2015). 양친, 한부,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과 가족환경특성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4), 147-160.
- 이영애, 정현희(2016).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7(2), 187-214.
- 이윤옥(2008).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동기와의 관계. **교육논총**, 27(2), 87-98.
- 임선아(2014). 부모의 민주적,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7(2), 73-93.
- 임연옥, 추상엽, 임성문(2007). 가족구조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비관성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상담연구**, 15(2), 67-79.
- 유순화(2008).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5(7), 157-180.
- 장혜림, 정익중(2012). 빈곤과 가족구조 결손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경로. **한국가족복지학**, 37(단일호), 111-142.

- 정주원(201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1), 101-118.
-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 친구, 교사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단일호), 81-97.
- 진미정(2008).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20(3), 187-211.
- 추상엽, 임성문(2007).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3), 135-15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archive.nypi.re.kr/>
-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5).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Ansari, A., & Gershoff, E. (2016). Parent involvement in head star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direct effects through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 562-579.
- Arkes, J. (2015). The temporal effects of divorces and separation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6(1), 25-42.
- Blondal, K. S., & Adalbjarnardottir, S. (2014). Parenting in relation to school dropout through student engage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4), 778-795.
- Cavanagh, S. E. (2008). Family structure history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9(7), 944-980.
- Cavanagh, S. E., Schiller, K. S., & Riegle-Crumb, C. (2006). Marital transitions, parenting, and schooling: Exploring the link between family-structure history and adolescents' academic status. *Sociology of Education*, 79(4), 329-354.
- Garg, R., Melanson, S., & Levin, E. (2007). Educational aspiration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 single-parent and two biological parent families: A comparison of influenti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8), 1010-1023.
- Heard, H. E. (2007). Fathers, mothers, and family structure: Family trajectories, parent gender, and adolescent school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2), 435-450.
- Hines III, M. T. (2011, January). Adolescent adjustment to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The intersection of gender and years in divorce in review. *In National Forum of Teacher Education Journal (Vol. 22)*.
- Magnuson, K., & Berger, L. M. (2009). Family structure states and transition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well being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3), 575-591.
- McLanahan,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Harvard University Press, 79 Garden Street, Cambridge, MA 02138.
- O'Connell, A. A., & McCoach, D. B. (2008). *Multilevel modeling of educational data*. IAP.
- Park, H. (2008). Effects of single parenthood on educational aspiration and student disengagement in Korea. *Demographic Research*, 18(13), 377-408.
- Steele, F., Sigle-Rushton, W., & Kravdal, Ø. (2009). Consequences of family disruption on children's educational outcomes in Norway. *Demography*, 46(3), 553-574.
- Sun, Y., & Li, Y. (2002). Children's well being during parents' marital disruption process: A pooled time serie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472-488.

- Sun, Y., & Li, Y. (2009). Postdivorce family stability and changes in adolescents' academic performance: *A growth-curve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30*(11), 1527-1555.
- Sun, Y., & Li, Y. (2011). Effects of family structure type and stability on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trajecto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3), 541-556.
- Waldfogel, J., Craigie, T. A., & Brooks-Gunn, J. (2010).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The Future of Children/Center for the Future of Children, the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20*(2), 87.

<부록 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1차 조사표(청소년용)

조 4 패널 제1차 조사(2010년)

- 청소년용 조사표 -

문1) 학생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실제 태어난 생년과 월을 아래에 써 주십시오.

_____ 년 _____ 월

문2)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남자

2. 여자

I. 일상생활

문3) 학생이 이번 학기(2010-2학기) 중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9개 항목을 모두 써 주십시오.

※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0시간 0분'으로 써 주십시오.

	학교 가는 날 (월~금)	학교 가지 않는 날 (놀토, 일, 공휴일)
①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요?	밤 _____시에 자고 아침 _____시에 일어나 난다.	밤 _____시에 자고 아침 _____시에 일 어난다.
② 학원(과외)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_시간 _____ 분	_____시간 _____ 분
③ 학교 숙제를 하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_시간 _____ 분	_____시간 _____ 분
④ 학원(과외) 숙제를 하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_시간 _____ 분	_____시간 _____ 분
⑤ 학교나 학원(과외) 숙제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_시간 _____ 분	_____시간 _____ 분
⑥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을 읽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_시간 _____ 분	_____시간 _____ 분
⑦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_시간 _____ 분	_____시간 _____ 분
⑧ 휴식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DVD를 시청하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_시간 _____ 분	_____시간 _____ 분
⑨ 위의 ⑦~⑧ 이외에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되나요?	_____시간 _____ 분	_____시간 _____ 분

문4)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청소년

문5) 학생은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사용한다.
2. 사용하지 않는다. ⇒ 문6)으로 가십시오.

문5-1)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십시오.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문5-2) 학생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래 중 해당 번호 하나에만 ○표 해 주십시오.

1. 우리 집 2. 친구 집
3. 학교 4. 학원
5. PC방 6. 복지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
7. 기타()

문5-3) 학생은 다음의 이유로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아래 10개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절혀 사용하지 않는다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1	2	3	4
②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영화 파일 등) 이용	1	2	3	4
③ 게임 및 오락	1	2	3	4
④ 채팅이나 메신저	1	2	3	4
⑤ 전자우편(e-mail)	1	2	3	4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1	2	3	4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활동	1	2	3	4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1	2	3	4
⑨ 댓글 달기	1	2	3	4
⑩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1	2	3	4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청소년

문6) 학생은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예

2. 아니오 ➡ 문7)로 가십시오

문6-1) 학생은 다음의 이유로 휴대 전화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아래 9개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① 가족과의 통화	1	2	3	4
②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1	2	3	4
③ 친구와의 통화	1	2	3	4
④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1	2	3	4
⑤ 게임 및 오락	1	2	3	4
⑥ 사진 촬영	1	2	3	4
⑦ 동영상 감상	1	2	3	4
⑧ 음악 듣기	1	2	3	4
⑨ 시간 보기	1	2	3	4

문6-2) 휴대 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7개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 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1	2	3	4
② 휴대 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1	2	3	4
③ 휴대 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1	2	3	4
④ 휴대 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	2	3	4
⑤ 혼자 있을 때 휴대 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1	2	3	4
⑥ 휴대 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2	3	4
⑦ 휴대 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1	2	3	4

II. 활동과 참여

문7) 지난 일주일 간 학교 체육시간 중 땀을 흘리며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 | |
|-----------|--------|
| 1. 없다. | 2. 1시간 |
| 3. 2시간 | 4. 3시간 |
| 5. 4시간 이상 | |

문8) 학생이 4학년이 된 이후,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전체가 참가한 수련회 등을 제외하고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를 통해 한 1박 이상의 여행은 몇 회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십시오.

※ 종교 단체 또는 아동·청소년 단체(예: 보이·걸 스카우트, 누리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을 통해 참가한 것은 포함됩니다.

4학년이 된 이후 _____회

문9) 학생은 4학년이 된 이후, 학교에서 학년 또는 학급 전체가 참가한 것을 제외하고 문화 활동(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을 몇 회나 했습니까? 아래에 써 주십시오.

4학년이 된 이후 _____회

문10) 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지금까지 외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1. 있다 | 2. 없다 ➡ 문11)로 가십시오. |
|-------|---------------------|

문10-1) (외국에 가 본 적이 있는 학생만 응답하십시오.) 학생은 외국에서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하고, 경험이 있다면 총 기간을 써 주십시오.

※ 교육 및 연수에는 학교나 학원 다니기, 캠프 참가 등이 포함됩니다.

- | | |
|---------------------------------|---------------------|
| 1. 있다 (_____년 _____개월 _____일) | 2. 없다 ➡ 문11)로 가십시오. |
|---------------------------------|---------------------|

문10-2) (외국에서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만 응답하십시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에서 교육 및 연수를 받은 것은 몇 학년 때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 | |
|-------------|-------------|
| 1. 초등학교 1학년 | 2. 초등학교 2학년 |
| 3. 초등학교 3학년 | 4. 초등학교 4학년 |

문11)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 | |
|--------------------------|-------------|
| 1. 종교가 없다. ➡ 문12)로 가십시오. | 2. 불교 |
| 3. 개신교(기독교) | 4. 천주교(가톨릭) |
| 5. 기타 (_____) | |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청소년

문11-1) (종교가 있는 학생만 응답하시오.) 학생은 절이나 교회, 성당 등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기입 예>와 같이 아래 오른쪽 표에서 주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 하고 횟수를 써 주십시오.

<기입 예>

주기	횟수
①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② <input checked="" type="radio"/> 일주일에	1 회
③ 한 달에	
④ 일 년에	

<응답 기입>

주기	횟수
①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② 일주일에	_____회
③ 한 달에	
④ 일 년에	

Ⅲ. 학습 및 학교생활

문12) 학생은 4학년이 된 이후 전학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있다

2. 없다

문13) 학생은 4학년이 된 이후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있다

2. 없다 → **문14)로 가십시오.**

문1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며칠이나 결석했습니까? 아래 각 이유에 대해 결석 일수를 모두 써 주십시오. ※ 아래 각 이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 결석 일수에 '0'이라고 써 주십시오.

	총 결석 일수
① 사고로 몸을 다쳐서	_____일
②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_____일
③ 가족 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	_____일
④ 가기 싫어서 또는 별 이유 없이	_____일
⑤ 기타 (_____)	_____일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청소년

문14)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1	2	3	4
②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1	2	3	4
③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④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1	2	3	4
⑤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1	2	3	4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당번이나 1인 1억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⑦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1	2	3	4
⑧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1	2	3	4
⑨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1	2	3	4
⑩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1	2	3	4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⑪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⑫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1	2	3	4
⑬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1	2	3	4
⑭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1	2	3	4
⑮ 놀이나 모듬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1	2	3	4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⑯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	2	3	4
⑰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⑱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1	2	3	4
⑲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1	2	3	4
⑳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청소년

문15) 학생의 학습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2	3	4
②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1	2	3	4
③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	1	2	3	4
④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⑤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1	2	3	4
⑦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⑧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1	2	3	4
⑨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1	2	3	4
⑩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⑪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운다.	1	2	3	4
⑫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1	2	3	4
⑬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⑭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 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	1	2	3	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⑮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1	2	3	4
⑯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1	2	3	4
⑰ 나는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	1	2	3	4
⑱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Ⅳ. 사회정서

문16)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1	2	3	4
②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1	2	3	4
③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④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1	2	3	4
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1	2	3	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1	2	3	4
⑦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⑧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	2	3	4
⑨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⑩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⑪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	2	3	4
⑫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⑬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1	2	3	4
⑭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	2	3	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⑮ 나는 사는 게 즐겁다.	1	2	3	4
⑯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1	2	3	4
⑰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청소년

문17) 학생이 부모님(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②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③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④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1	2	3	4
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 하게 하신다.	1	2	3	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1	2	3	4
⑦ 부모님(보호자)께서 나에게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1	2	3	4
⑧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1	2	3	4
⑨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1	2	3	4
⑩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다.	1	2	3	4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⑪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1	2	3	4
⑫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1	2	3	4
⑬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부모님(보호자)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1	2	3	4
⑭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게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	1	2	3	4
⑮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1	2	3	4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청소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⑮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1	2	3	4
⑯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1	2	3	4
⑰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1	2	3	4
⑱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1	2	3	4
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	1	2	3	4
㉕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1	2	3	4

V. 지역사회와 공동체

문18) 학생이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1	2	3	4
②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한다.	1	2	3	4
③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1	2	3	4
④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1	2	3	4
⑥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1	2	3	4

문19) 아래 각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 해 주십시오.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1	2	3	4
②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③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1	2	3	4
④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2	3	4

<부록 2>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1차 조사표(보호자용)

조 4 패널 제1차 조사(2010년)

- 보호자용 조사표 -

문1) 귀하는 '이 조사표를 가지고 온 학생'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 | | | |
|----------|--------|-----------|------------|
| 1. 어머니 | 2. 아버지 | 3. (외)할머니 | 4. (외)할아버지 |
| 5. 형제/자매 | 6. 친인척 | 7. 비혈연 | |

I. 학생의 방과 후 생활

문2) '이 학생'이 방과 후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 | |
|------------------------|------------|
| 1. 거의 없다. ⇨ 문4)로 가십시오. | 2. 1~2일 정도 |
| 3. 3~4일 정도 | 4. 거의 매일 |

문3) '이 학생'이 방과 후 혼자 있거나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 | | | |
|-----------|-------------|-------------|-----------|
| 1. 1시간 미만 | 2. 1~2시간 정도 | 3. 3~4시간 정도 | 4. 4시간 이상 |
|-----------|-------------|-------------|-----------|

II. 학생의 방과 후 교육

문4) '이 학생'은 4학년이 된 이후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 |
|-------|---------------------|
| 1. 있다 | 2. 없다 ⇨ 문44)로 가십시오. |
|-------|---------------------|

문4-1) '이 학생'이 4학년이 된 이후 받은 방과 후 교육 유형과 주당 평균 이용 시간 및 월평균 교육비를 아래 <기입 예>와 같이 써 주십시오.

구분											
		방과 후 교육 유형									
번호	과목	① 학원	② 개인 과외	③ 그룹 과외	④ 방문 수업 (학습지 포함)	⑤ 인터넷 (통신)	⑥ 방과 후 학교	⑦ 복지 기관	⑧ 시설 문화센터	⑨ 기타	
1	국어			○		○					
	주당 평균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1 30 분	___ 시간 ___ 분	2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10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3 5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 ⑦복지기관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기타 시립 및 구립 시설 등을 말합니다.
 ※ 자녀가 '종합반' 또는 '보습학원' 등에서 여러 과목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를 한꺼번에 지불하였다면 각 과목별로 금액을 나누어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영어수학 종합반 수강료로 3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영어 15만 원, 수학 15만 원으로 기입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보호자

구분		방과 후 교육 유형								
번호	과목	① 학원	② 개인 과외	③ 그룹 과외	④ 방문 수업 (학습지 포함)	⑤ 인터넷 (통신)	⑥ 방과 후 학교	⑦ 복지 기관	⑧ 사설 문화 센터	⑨ 기타
1	국어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2	수학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3	영어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4	사회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5	과학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6	논술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보호자

구분		방과 후 교육 유형								
번호	과목	① 학원	② 개인 과외	③ 그룹 과외	④ 방문 수업 (학습지 포함)	⑤ 인터넷 (통신)	⑥ 방과 후 학교	⑦ 복지 기관	⑧ 사설 문화 센터	⑨ 기타
7	한자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8	음악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9	미술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10	체육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11	기타_____									
	주당 평균 시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___ 시간 ___ 분
	교재비를 포함한 월평균 교육비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___ 만 ___ 천 원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보호자

문4-2) ‘이 학생’이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 2가지를 골라 우선순위로 해당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2.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으므로
3. 선행 학습을 하기 위해
4.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5. 학교 성적의 향상을 위해
6.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7. 방과 후 ‘이 학생’을 돌봐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8. 기타 _____

문4-3) ‘이 학생’에게 드는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 비용이 가계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매우 부담된다.
2. 부담되는 편이다.
3.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문4-4) (‘이 학생’이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이 학생’이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 2가지를 골라 우선순위로 해당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해서
2.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3.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4. 마땅한 과외 교사나 학원을 찾지 못해서
5.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6.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7.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8. 기타 _____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보호자

Ⅲ. 학생의 건강

문5) ‘이 학생’은 4학년이 된 이후 아래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 및 공부에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아래 해당 칸에 건강 문제 유무를 ○표로 표시하고 건강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일상생활 및 공부에 지장을 받는 정도에 ○표 해 주십시오.

	건강 문제 유무	일상생활 및 공부에 지장을 받는 정도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받지 않는다
① 천식	1.있다	1	2	3
	2.없다			
② 비염	1.있다	1	2	3
	2.없다			
③ 아토피피부염	1.있다	1	2	3
	2.없다			
④ 비만	1.있다	1	2	3
	2.없다			
⑤ 심장질환	1.있다	1	2	3
	2.없다			
⑥ 당뇨병	1.있다	1	2	3
	2.없다			
⑦ 기타_____	1.있다	1	2	3
	2.없다			

Ⅳ. 가구 구성 및 부모님(보호자) 특성

문6) ‘이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살고 있는 주소지를 아래에 써 주십시오.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문7)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한 부모는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만 같이 살고 있을 경우, (한)조부모는 학생이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뜻합니다.

- | | |
|------------------------|------------------------|
| 1.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 2. 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자녀 |
| 3. (한)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자녀 | 4. (한)조부모+부모+자녀 |
| 5.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 6. 기타(_____) |

문8)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 | |
|----------------|--------------|
| 1. 친아버지+친어머니 | 2. 친아버지만 |
| 3. 친어머니만 | 4. 친아버지+새어머니 |
| 5. 친어머니+새아버지 | 6. 새아버지+새어머니 |
| 7. 새아버지만 | 8. 새어머니만 |
| 9. 부모님 모두 안 계심 | |

문9) '이 학생'과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부모님(보호자)의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을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타 지역 근무 또는 건강상 요양/입원 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됩니다.

항목	부	모	보호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1. 출생 연도	년	년	년
2. 교육 수준	1. 중졸 이하 2. 고졸 3. 전문대 졸 4. 대졸 5. 대학원 졸	1. 중졸 이하 2. 고졸 3. 전문대 졸 4. 대졸 5. 대학원 졸	1. 중졸 이하 2. 고졸 3. 전문대 졸 4. 대졸 5. 대학원 졸
3. 근로 여부	1. 일을 하고 있다. 2.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 일을 하고 있다. 2. 일을 하고 있지 않다.	1. 일을 하고 있다. 2.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아래 3-1. ~ 3-4. 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3. 근로 여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고 응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3-1. 근로 일수	주중	_____일	_____일
	주말	_____일	_____일
※ 격주 근무일 경우 0.5일을 추가하여 써 주십시오. 예) 토요일 근무인 경우는 주말 0.5일			
3-2. 근로 시간대	주중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주말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 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써 주십시오. 예)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경우: '9시~18시'			
3-3. 직업	일의 종류		
	부서 및 직책		
	<응답 예> ※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1)	예2)
	일의 종류	생산제품 검사	머장
	부서 및 직책	생산부 대리	없음
3-4. 종사상 지위	1. 임금·봉급 근로자 2. 고용원을 둔 사업주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4. 무급 가족 종사자	1. 임금·봉급 근로자 2. 고용원을 둔 사업주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4. 무급 가족 종사자	1. 임금·봉급 근로자 2. 고용원을 둔 사업주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4. 무급 가족 종사자
	※ '자유직업인(프리랜서)'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해당합니다.		

■ 초4 패널 제1차 조사(2010) - 보호자

문10) '이 학생'은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1. 형/오빠 _____ 명
2. 누나/언니 _____ 명
3. 여동생 _____ 명
4. 남동생 _____ 명
5. 형제자매가 없다.

문11) '이 학생'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새터민(탈북자) 가정, 중국 조선족 가정 등을 말합니다.

1. 다문화 가정이다.
2. 다문화 가정이 아니다.

문12) '이 학생'이 속한 가구의 지난 일 년간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을 써 주십시오.

※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개인적으로 받은 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연소득 세후 만 원

문13) '이 학생'이 거주하는 주택은 어떤 형태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본인이 소유한 집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 주택
4. 다세대(가구) 주택
5. 상가 주택
6. 보호 및 양육 시설
7. 기타 _____

문14) 동년배와 비교해 볼 때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문15) 귀하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Abstract

School Adjustment Trajectory of Continued Single-Parent Family's Adolescents and Associated Factors

Kim, Sangha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gle parent who stayed single more than five years comprised 67.1% when their youngest child attended elementary school, 81.2% when their youngest kids attended middle school or above(2015 Study on the Status of Sole-Parent Families). It means that single parents stayed single for a long time if their child attended an elementary school or above. It was well known that adolescents in the single parent families experienced developmental disadvantages on account of decline in income and parenting attitude, though it wasn't fully unfold whether the process can be one-time or continuous. This study tried to check

early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rajectory, which is a fundamental base of adolescents' educational achievement, to examine the continued single parent family's adolescents' developmental trajectory.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control the developmental disadvantages which had been cumulated before the observation. If single parent family's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ept decreasing even after controlling the initial status, that means staying single parent family offers additive disadvantages. On the contrary, if the gap between single parent family and two parent family were decreased or maintained, it would support the recovery perspective after experiencing initial hardship. Besides,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associated factors, which are 'family income', 'parental attitude', 'child's academic motivation', whether these explain the school adjustment gap between single and two parent family.

This study used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and it's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hich was followed until 3rd grade of middle school.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1,664 figures. Two parent family 1,564 was classified when child was living both with 'biological mother' and 'biological father' and was continued throughout the observation period. Single parent family 100 was classified when child was living only with 'biological mother' or 'biological father' and was continued throughout the observation period. Analyzing technique was multi-level growth modeling and statistical software SPSS19 and HLM7 was used. Main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ere decreased from 4th

grade elementary school to 1st grade middle school and increased a little from 1st to 3rd grade of middle school. After putting family structure variable into analysis, continued single parent family's adolescents showed lower school adjustment than two parent family, which trend was continued from 4th grade elementary school to 3rd grade of middle school.

Second, 'family income', 'parental attitude', 'child's academic motivation' were confirmed to explain the gap between continued single parent family's adolescents and two parent family's adolescents. When putting 'family income', 'parental attitude', 'child's academic motivation' variable into analysis all together, almost half of the gap was explained.

These results suggests the need to offer the income support and decent quality of jobs for single parent family to release the economic hardship. The results also suggest the parental education that helps to raise general parenting skills as well as promoting parent's role for child's education supporter.

Although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continuity' on adolescent's development, the data couldn't distinguish the family structure of precedent observation. Further study needs to find the method to complement the deficient observations on family structure. Besides, this study couldn't consider the reason why the families became single families, so this study couldn't examine more specific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adolescent's development.

Despite of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an be distinguished when it comes to identifying the continuity of single parent family status with using six time point observations. With using multi-level growth modeling, this study could control the family

structure's effect of precedent observations. It offered to examine the additive disadvantage of school adjustment of continued single parent family's adolescents. Besides, this study offered the base for the intervention policy because it examined the effect of important factors like 'family income', 'parenting attitude', 'child's academic motivation' on the school adjustment gap between the single and two parent family's adolescents.

keywords : continued single parent family, family income,
parenting attitude, child's academic motivati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longitudinal changes
Student Number : 2015-21733